

광양시-中선전시, 교류 20주년 '경제 협력·우정' 다졌다

자매결연 선전시 방문...연화산 공원·사진전 관람 등 공원 조성 분야 벤치마킹·경제 분야 교류 협력 논의

광양시가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중국 선전시를 방문, 공원 조성·관리 분야에 대해 벤치마킹하고 양 도시의 우정과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정인화 광양시장을 단장으로 한 민·관·경제 대표단이 중국 선전시를 방문한다.

민·관·경제 대표단은 정인화 시장, 조현욱 광양시의회 부의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안성수 광양벤처밸리 기업협의회 회장, 포스코 대외협력·벤처지원센터 및 이차전자·벤처기업 관계자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선전시 중심부에 있는 연화산 공원 방문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을 단장으로 한 민·관·경제 대표단이 지난 5일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중국 선전시를 방문한 가운데 선전시청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광양시 제공>

중국 4대 도시로 꼽히는 선전시는 1천300여개의 공원을 조성한 경관 도시로 유명하다.

공원 곳곳을 둘러본 방문단은 선전시 공원 조성·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도



시관리국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광양시 접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문단은 공원 벤치마킹 후 뤼황하오(羅晃浩) 선전 부시장을 접견했다.

정 시장은 "선전시는 경제·기술의 놀

라운 발전을 이뤄내며 글로벌 첨단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라며 "선전시와 함께 걸어온 20년 교류 역사를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자매결연 20주년을 기점으로 유대관계가 더욱 끈끈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경제 분야의 실질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탄탄한 토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뤼황하오(羅晃浩) 선전 부시장은 "양 도시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한결같이 지켜 준 광양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었을 때 서로 힘이 됐던 소중한 우정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고 화답했다.

일행은 접견을 마치고 선전시청 내 전시된 '교류 20주년 기념 사진전'을 관람한 후 선전특구포매체와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표단은 남은 일정 동안 경제적 교류 및 시장 현안 관련 선전국제상회, 파공광(大公坊) 'iMakerbase', 선전 동부 환경보호발전소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선전시는 홍콩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국제항만도시로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유명하다. 80년대 초 중국 경제특구 지정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세계적인 IT·전자 기업들이 분사한 인구가 1천766만명의 글로벌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광양=양홍철 기자

고흥군, 지방소멸 대응 빛났다

행안부 평가 우수 지역 선정...160억 기금 확보 郡,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수축산밸리 조성 집중

고흥군이 행안부 주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재정 지원하는 중앙정부 기금으로, 지자체별 투자계획을 평가

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고흥군은 그동안 지역주민과 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문금주 지역구 국회의원과 연계한 투자사업 발굴,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2025년도 우수지역 선정에 목표를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7월부터 투자계획서의 전반 평가, 현장 방문, 대면 평가, 종합 평가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우수지

역'으로 선정, 기금 16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지난달 15일 실시된 행정안전부의 대면 평가에서는 공영민 고흥군수가 직접 PPT를 발표하고, 인구 관련 지역 여건과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기금 최대 확보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청년인구 정착 ▲생활인구 확대 ▲연계·협력 등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특정 거점, 특정 사업, 지역활력 사업

에 중점을 두고 고흥만을 거점으로 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수축산밸리 조성'과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기반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절벽에 처한 고흥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수축산밸리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에 활력이 넘치는 지방소멸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흥군 인구감소 대응 정책단'을 구성하고, 기금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안정적인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기금사업과 연계한 추가적인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고흥=최봉환 기자

보성,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작

11일부터 새청무 단일품종...고령농 '수매도우미' 운영도

보성군은 7일 "오는 11일부터 노동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별 공공비축미곡 포대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4년 벼 수확 예상량은 1천411천여 포대로 지난해 대비 약 4.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비축미곡 총 매입 물량은 14만9천199포대·40kg(산물벼 6만7천580포대·일반벼 5만5천199포대·가루쌀 2만6천420포대)다.

강진군은 쌀값 하락세의 대책으로 시장격리곡 3만3천689포대·40kg(포대벼 3만2천999포대·친환경 760포대)도 매입 일정에 맞춰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가격은 포대벼의 경우 수확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물벼는 포장이 없는 상태로 매입하므로 포대

벼 매입 가격에서 포장비용(81원·40kg)을 차감한 가격이다.

매입 대금은 산지 쌀값이 결정되기 전에 중간 정산금 형태로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4만원·40kg을 지급하고, 정산은 최종 매입 가격이 확정된 연 말에 실시한다.

또한 품종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 제도'를 실시한다.

단, 보성군은 '새청무' 단일품종만 수매한다. 매입 현장에서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해 '새청무' 이의 품종 수매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인구 고령화와 부녀화로 수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올해도 '수매도우미' 제도를 실시한다. /보성=임병연 기자

여수 '낭만 낭도 야영장' 새단장

내달 15일까지 정비...일부 시설 제한

낭도의 푸른 바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낭만 낭도 야영장'이 문체부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한층 쾌적하게 새 단장 중이다. <사진>

7일 여수시에 따르면 낭만 낭도 야영장은 지난 2017년 준공 이래 연간 2만명 이상이 찾는 바다 조망 캠핑장이다.

여수시는 노후·파손된 야영장 시설물 정비를 위해 오는 12월15일까지 사

업비 5천800만원을 투입해 ▲야영장 목재 데크 계단 보수 ▲잔디 블록 캠핑 사이트 조성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등을 시공한다. 이에 따라 정비 기간 동안 36개 사이트 중 26개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객이 많은 주말을 피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족구장, 편의점 등 부대시설은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정비 기간 야영장 일부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점에 대해

야영객들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꿀벌 지켜라" 화순 양봉농가 월동준비

郡, 산란 중지·꿀벌에 방제 등 수명 연장법 안내

화순군이 매년 반복되는 꿀벌 실종 사태를 막기 위해 양봉농가에게 꿀벌 월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겨울 한낮 최고 기온이 크게 올라 월동할 벌들이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고 비행을 나갔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운 좋게 돌아오더라도 체력 소모가 심해 지속적인 월동 벌에 비해 수명이 크게 단축된다.

이에 화순군은 양봉농가의 월동 준비 및 집중 관리요점을 소개했다.

첫째, 11~12월 사이에 여왕벌의 산란을 중지시켜 일벌의 육아를 중단해 체력소모를 줄이고 산란 중지 3주 후에 꿀벌에 마지막 방제를 한다.

둘째, 햇빛이 잘 들지 않고 바람이 불

지 않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에 월동준비를 한다. 온도변화가 심한 곳은 보온판을 내부에 보강하고 겹포장이나 속포장은 과하게 하지 않아 내부 온도가 올라가 벌들이 깨지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월동이 풀려 벌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면 바로 봄벌 키우기로 전환한다. 내·외부 보온을 강화하고 화분과 물, 당액 공급을 통해 약한 산란과 육아를 유도하고 봄까지 기른다. 가온판을 활용하면 온도를 올리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겨울에는 관해했던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매해 반복되고 있어 농가들의 사육 방식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군, 폐현수막 활용 '농작물 화분' 배부

탄소중립 실천·농가 경영비 경감 '일거양득'

담양군이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농작물 화분을 제작, 농가에 배부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미싱동아리 '쏘잉스쿨'과 함께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한 농작물 화분 700개를 지난달 원에 농가에 배부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부직포 화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된 '폐현수막 농작물 화분'은 올해 초 원에 농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9천300개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올해는 700개만 우선 제작해 희망 농가 7곳에 배부했으며, 담양군은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개선할 사항을 조사해 동아리 회원들과 개선된 폐현수막 농작물 화분을 제작할 예정이다.

폐현수막 농작물 화분은 매년 발생

하는 폐현수막 처리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블루베리 등 원에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주민의 손을 거쳐 쓰임을 다했던 폐현수막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농자재로 다시 태어나 탄소중립 실천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폐현수막의 다양한 재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현수막의 재질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또는 특수 코팅 처리를 한 텐트 천으로 소각할 때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하며 매립할 때는 썩는 데만 50년 이상 걸린다.

담양군에서는 지난해 3천900장의 폐현수막을 수거, 이를 재활용해 가방, 우산 등을 만들어 활용하며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왔다.



주민미싱동아리 '쏘잉스쿨'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농작물 화분을 제작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군 '벗짚 환원 사업' 흙 살리기 실천

작물 생육 환경·토양 물리성 개선

구례군은 7일 "땅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으로 벗짚 환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벗짚 환원은 양질의 유기물과 질소·인산·칼리·규산·석회 등 식물양분을 흙에 되돌려 작물 생육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토양 내 매달구조를 만들어 통기성·배수성을 좋게 만들고 토양

물리성 개선에도 효과가 크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한 흙이 건강한 먹거리 생산의 근본'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벗짚 환원이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실천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농토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무분별한 토양 사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법과 기술 지도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구례=임종길 기자